

눈금자 이용 집유량 측정방식 도마위

경주지역 한 낙농가가 집유량 측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집유량 측정은 눈금자를 이용해 육안으로 측정하는 방식과 플로미터(Flow meter)라는 기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눈금자를 이용한 측정이 이뤄지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문제를 제기한 이 낙농가는 지난 2010년까지 A유업체 경산공장에 납유를 한 낙농가로, 쿼터 문제로 인해 2006년부터 B유업체와 병행 납유를 해 왔다는 것. 이 과정에서 눈금자를 이용해 집유량을 측정하는 A유업체와 플로미터를 이용해 집유량을 측정하는 B유업체의 집유량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A유업체의 집유량이 적게 측정됐다는 것이다.

이 낙농가에 따르면 A유업체와는 20여년 동안 거래를 해왔고 한 번 집유할 때마다 평균 30~40kg의 집유량 차이가 난 것으로 추정돼 최소 2억원 이상의 손실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유업체 측은 눈금자를 이용한 측정 방식은 낙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고 측정치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A유업체는 경산공장에 납유하는 낙농가들로부터 눈금자 측정을 원한다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농가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낙농업계 한 관계자는 “플로미터를 이용해 측정하는 것이 눈금자를 이용할 때보다 정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낙농가들은 플로미터도 못 믿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눈금자 측정의 경우 측정 환경 등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수 있고 한 번 눈금자의 제작이 잘못 될 경우 측정 오류는 계속 날 수 밖에 없어 대부분의 곳에선 집유량 측정시 플로미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A유업체의 경우도 해당 낙농가가 문제를 제기해 3번이나 눈금자를 다시 제작해 준 바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업체에서 플로미터 측정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만 눈금자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이 농가는 눈금자 측정에 문제를 제기한 지난 2010년 A유업체로부터 거래중지를 당한 상태. A유업체는 이 낙농가와와 거래 중단을 알리는 공문에서 ‘3차에 걸쳐 잦아 제작 및 점검을 했음에도 해당 목장주의 불신이 계속돼 귀 목장 원유를 집유할 수 없다’고 통보 했다.

해당 목장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단순히 납유량 측정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거래정지나 우유값 손해 등 당장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힘없는 농가가 유업체에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는 낙농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유업체 관계자는 “측정방식은 낙농가들의 요구가 있었던데다 확인 결과 눈금자 측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유업체의 잘못으로만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문제제기가 된 만큼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유업체와 해당 지역 낙농가들은 집유량 측정 방식을 놓고 의견 수렴 작업 등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지만, 측정방식이 바뀌어도 보상문제 등에 있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피해 남부지역 목장 유방염 속출

지난 8월 제13호 태풍 불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축사지붕이 날아가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남부지역 낙농가들이 이번에는 유방염으로 인한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태풍피해가 컸던 전남과 경남 지역 낙농가들 사이에 젖소 유방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태풍피해 지역에서 유방염이 크게 늘어난 것은 태풍으로 인해 축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젖소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착유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젖소들이 유방염에 걸린 경우

도 있다. 이로 인해 유방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원유에서 항생제 검출이 잇따라 폐기량도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계절적인 원인이 크지만 10월 초순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가 극심했던 8월 5천690톤대였던 원유 생산량이 여름철 무더위 영향을 벗어난 9월 하루 평균 5천800톤을 넘어서었지만 10월 들어서면 다시 5천700톤대로 하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지역의 낙농가는 "태풍으로 인해 축사 지붕이 날아가고 일부지역의 경우 정전으로 인해 착유기나 냉각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또 바람으로 인해 축사내 이물질 등이 날아들면서 젖소들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9월부터 국제곡물가 상승세 주춤 들쭉이는 국내 배합사료값 잡을까

치솟던 국제곡물가가 9월을 넘어서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내재된 국내배합사로 상승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부터 급등세를 보인 옥수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지난 19일 톤당 300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6월 1일 217달러에서 시작해 최고 327달러(8월 22일)까지 올랐던 것에 비해 약 8.2% 가량 떨어진 상황이다. 같은 날 대두도 564달러에 거래되면서 최고치 651달러(9월 14일)와 비교해 13% 가량 떨어졌다.

하지만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2011/2012년 대비 2012/2013년 기말재고량이 1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옥수수는 생산량마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가격하락은 투기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조정이라는 분석이 높다. 가격이 폭등했다가 급락하던 예년과 달리 현재 수준에서 거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

한국사료협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조정세는 9월부터 시작됐다"며, "고점은 찍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옥수수의 경우 운임을 포함해 톤당 400달러였던 것

이 10월 초 3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의 가격이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작황부진이 예고되면서 투기자본이 12월이나 3월 선물가격을 높게 끌어올린 상황에서 시장에서 빠졌다고는 하나 현재의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또 가격의 추가적인 등락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남미, 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의 동유럽과 호주 등에서 작황이 집계되어야 하는데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파종에 들어가는 남미는 재배의향이 높아 곡물가 하락에 긍정적이지만, 우크라이나는 11월 15일부터 소맥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고, 호주 서부지역의 가뭄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반적으로 큰 폭의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와 연구기관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유대산정체계 개선 논의 2년만에 재개

FMD와 기본원유가 인상 등으로 인해 2여 년간 개점 휴업상태였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10월 25일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2008년 기본원유가 인상 당시 전제 조건으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민 식생활이 저지방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방 위주의 원유가격 산정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2009년 충남대 박종수 교수팀에 단백질 요소를 포함시킨 원유가격산정체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박종수 교수팀이 연구를 마치고 2010년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포천에서 발생한 FMD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포천지역 FMD가 마무리된 후 2010년 6월부터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돌입했지만 농가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답보상태를 보이다가 2010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FMD로 인해 다시 한 번 연기됐다.

이후에는 기본원유가격 인상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은 다시 한 번 잠들게 된 것이다. 또한 2010년 기본원유가 인상 이후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기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원유가격인상 이후 수취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의 수취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한 번 검토 후 원유가격산정체계를 논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이 FMD와 원유가격협상 등으로 인해 벌써 4년이 흘렀다"라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벌써 농가들이 새로운 가격산정체계에 적응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유급식은 경복이 최고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세계학교우유급식의 날 기념 경연대회에서 2012년 우유급식 최우수교 선정된 포항 신흥초등학교에서 현판식을 10월 24일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낙농진흥회 관계자 및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해, 학교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학교우유급식의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신흥초등학교는 우유급식 최우수학교에 대한 포상의 일환으로 낙농진흥회로부터 낙농체험비 300만원 및 교육용품 2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학교 우유급식담당자는 낙농체험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백만흠 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우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완전식품으로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